

한의사들, 국산녹용 품질 “인정”

- 비룡사슴농장, 한의학 박람회 참가에 국산녹용 홍보 -

중앙일보와 경희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한의학 국제박람회가 지난 12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대서양관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총 120여개의 업체가 참가한 금번 행사에서 양록관련 업체로는 충남 비룡사슴농장(대표:이성복)과 충북사슴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유근형), 하명식품(이사:이철수) 등이 참석, 국산녹용 및 한약재 등을 전시 판매했다.

특히 국산생녹용 및 진공동결건조녹용, 사슴대보탕 등을 전시 판매한 비룡사슴농장의 경우 5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7백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한편 국산 진공동결건조녹용에 대해 한의사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양록사업단 단장이기도한 비룡사슴농장 이성복 사장은 “원료의약품 제조 허가를 신청중인 국산진공동결건조녹용(국선용)에 대해 한의사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납품문의 및 구입방법 등을 질의하는 한의사가 많았다고 전했다.

국선용을 살펴본 한의사들은 “국선용의 상품가치가 대단히 우수하며 이 정도의 품질이면 한의원에서 국산녹용을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국선용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한의사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한약

재 품목허가 획득)만 갖춰지면 국산녹용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외산녹용과의 가격차이에 대해서도 “한의원 사용 녹용 중 최고로 인정하고 있는 러시아산보다 품질도 좋고 가격차이도 3만원 정도 밖에 나지 않아 가격문제로 국산녹용을 회피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성복 사장은 “국산녹용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도, 특히 녹용 주소비처인 한의사들의 주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금번 행사의 참여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국산녹용이 한의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추진중인 국선용의 원료의약품 제조 허가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양록사업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원료의약품 규격화업소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실험기자재 몇가지와 관리약사만 충족시키면 조만간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양록**

